



MBC '복면가왕'이 전 세계 40개국에서 리메이크돼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영국·미국·스페인 등에 이어 노르웨이 버전 'Maskorama'도 11월7일 현지 방송사 NRK1이 첫 방송해 46.9%의 시청점유율로 포맷의 성공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복면가왕,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포맷”

-프랑스 언론

방송영상 해외 투자설명회 예시로 전 세계 40개국에 다양한 형식 제작 佛·英·스페인 등 시청률 30%대 육박 NATPE “이전까지 본 적 없는 방송”

11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형식(포맷)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북미·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11월30일 시작해 이달 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이번 설명회에서 포맷 수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MBC '복면가왕'이다. 실제로 '복면가왕'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구권에서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으며 또 다른 한국 프로그램을 현지에 소개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프랑스 TF1 채널은 10월17일부터 '복면가왕'의 현지 버전인 '마스크 싱어(Mask Singer)' 시즌2를 첫 방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이 프로그램이 첫 회 480만 명이 시청하며 24.3%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시즌1도 평균 32.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매주 토요일 방송되며 최근까지 매주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콘진원은 스트라티지 등 현지 언론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방송 포맷”이라고 호평했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도 열기가 뜨겁다. 콘진원에 따르면 최근 ITV 네트워크가 올해 1월부터 방송한 '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

d Singer UK)' 시즌1이 시청률 30%대의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내년 초 새로운 리메이크 형식을 선보인다. 미국의 지상파 채널 폭스는 올해 9월부터 '복면가왕' 리메이크 버전 시즌4를 황금시간대인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영했다.

스페인에서는 11월 초부터 역시 안테나3 채널을 통해 현지 리메이크 버전이 선보이고 있다. 정누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스페인 통신원은 “첫 회에 축구선수 크리스티안 호날두의 아내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사자 가면을 쓰고 나와 큰 화제를 모으는 등 평균 시청률 25%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엘 파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엠넷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MBC '나는 가수다'·'아빠 어디가' 등도 리메이크된다고 알렸다. 앞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복면가왕'과 함께 포맷 리메이크 미국 폭스 채널을 통해 현지에서 사랑받았다. 정 통신원은 “스페인에서 한류의 범위는 아이돌 그룹의 케이팝을 넘어 더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면가왕'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포맷이 이처럼 해외에서 각광받는 요인에 대해 현지 관계자들은 “창의성과 차별성”을 꼽는다. 콘진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방송제작자연합회(NATPE)가 TV 및 스트리밍산업과 관련해 논의의 장을 연 'NATPE 스트리밍 플러스'에서 '복면가왕'의 리메이크 버전 제작자인 스마트 독 미디어의 크레이그 플래티스 회장은 “한국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복면가왕' 등은 “이전까지 본 적 없는 포맷”이라고 호평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논문 표절 의혹 홍진영 '미우새' 녹화 불참



홍진영

최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수 홍진영이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모습을 감췄다. SBS는 11월30일 “최근 홍진영의 아이টে임을 다루지 않았다”며 “그의 어머니도 당분간 녹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전날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다. 홍진영은 2009년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선대 교수라는 점에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 이에 최근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등에서도 하차했다.

MBC라디오 59주년 맞아 DJ 바뀐 진행

MBC라디오가 창사 59년을 맞아 라디오 DJ들이 서로 프로그램을 바꿔 진행하는 'MBC FM4U 패밀리데이' 특집을 연다. 1일 '꿈꾸는 라디오' 진행자 전효성이 '세상을 여는 아침'을 맡아 특집의 포문을 연다. '음악캠프'의 DJ 배철수가 장성규 대신 '굿모닝FM'을 진행하고, '정오의 희망곡' 진행자 김진영이 배철수의 프로그램인 '음악캠프' 마이크를 잡는다.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 퀴즈로 '지금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출제해 청취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데뷔 43년차 김갑수 유튜버 변신



김갑수

데뷔 43년차 연기자 김갑수도 유튜버(유튜브 진행자)로 나선다. KBS는 11월30일 “김갑수가 KBS 유튜브 채널 '인싸깍'을 통해 낯익은 유튜버로 변신한다”고 밝혔다. 콘텐츠는 김갑수가 SNS 가입 등 최신 유행하는 주제에 연이어 도전하면서 '인싸(인사이드)'로 거듭나는 내용을 담는다. 제작진은 “드라마에서 중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김갑수가 이를 통해 귀엽고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콘텐츠는 11월30일 예고편을 공개하며 출발했다.

배우 정성화 공연중 종아리 부상



정성화

배우 정성화가 종아리 부상을 입었다.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무대에 올린 뮤지컬 '그날들'에 출연 중인 정성화는 11월30일 SNS에 “28일 저녁 공연에서 갑자기 움직이다가 종아리 쪽 근육이 파열됐다”며 “병원에 문의해보니 왼쪽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근육을 쉬면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공연을 못 하게 됐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어 마음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다스베이다' 프라우즈, 코로나로 사망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다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데이브 프라우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30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프라우즈의 딸 레이철은 이날 향년 85세로 숨진 아버지의 사인이 코로나19였다고 밝혔다. 또 프라우즈가 생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프라우즈는 역도선수이자 보디빌더 출신으로, 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에피소드4: 새로운 희망' 등에서 다스베이다 역할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TV는 본방사수지” vs “웹툰 원작에 클릭”

중장년층, TV 본방사수로 시청률 높여 1020세대는 모바일·인터넷 통해 시청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의 안방극장 시청 행태와 취향이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중장년층이 TV로 '본방사수'하는 반면 1020세대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인기 지표인 시청률과 동영상 조회 수가 각기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각 드라마 제작진은 이에 이른바 '막장' 코드로 중장년층의 '리모콘 파워'를 노리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젊은 세대의 '화력'을 겨냥하는 작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지나치

게 자극적이라는 일부 시청자의 지적에도 최근 시청률이 16%대(닐슨코리아)를 넘어며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중장년층 시청자의 힘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하지만 동영상 조회 수, 온라인 게시물 수 등을 반영해 CJ ENM이 매주 발표하는 콘텐츠 영향력 지수 순위(CPI)에서 드라마는 4위(11월16일~22일 집계)에 그쳤다. 시청률이 화제성보다 월등히 높은 셈이다. 시청률 성과는 곧바로 시즌2·3을 제작하는 발판이 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불륜과 이혼을 주제로 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도 2일 시청자를 찾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시청자를 겨냥해 토리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가 연이어 나온다. 최근 방영 중인 JTBC '라이프온'을 비롯해 9일 첫 방송하는 tvN 새 수목드라마 '여신강림', 내년 초 방영할 KBS 2TV '디어엠프' 등이다. 각각 뉴이스트의 멤버 황민현,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등 아이돌 멤버를 주연으로 내세워 1020세대 시청자를 공략한다. 이들에게 익숙한 원작 웹툰을 흥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tvN 새 수목드라마 '여신강림'

한 방송관계자는 11월30일 “시청률보다 OTT 재생 수, 판권 판매 등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각 세대별 취향을 담은 콘텐츠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젊은 시청자의 TV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투영된 결과로,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인기가요’ 출연한 업텐션 비토 코로나 확진...가요계 비상

가요계에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11월28일과 29일 음악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했던 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가요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출연 가수들과 스태프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았고, 각 방송사는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11월30일 그룹 업텐션의 소속사 티오 피미디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한 멤버 비토(이창현)가

스케줄 종료 후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텐션은 앞서 28일 MBC ‘쇼! 음악중심’에도 출연했다. 소속사는 “그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소속 가수 및 스태프 등이 진단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업텐션의 향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다.

이에 ‘인기가요’와 ‘쇼! 음악중심’에 나섰던 그룹 씨엔블루를 비롯해 모모랜드, NCT, 비투비 포유, 악뮤, 트레저,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우즈, 나미, 노라

조, 스테이씨, 블링블링 등은 물론 각 프로그램의 MC와 관련 스태프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날 SBS 측은 “전 출연자와 스태프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들의 모든 동선 및 밀접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당장 일부 음악프로그램이 결방기로 하는 등 여파가 다른 무대로 미치고 있다. 더욱이 한 프로그램에 적게는 10개 팀, 많게는 15개 팀이 출연하지

밀접접촉 아이돌·스태프 등 진단검사 SBS MTV 음악프로그램 ‘더쇼’ 결방